



# 동성애의 실체

평범한 행복을 찾아서



### ●박진권 디렉터

탈동성애자이고, 현재 아  
이미니스트리 대표이다.

‘여자를 보고 설렘 수 있을까?’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할까?’

나에게 상담을 받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하는 질문이다. 나 역시 20년이 넘도록 여자 보기를 돌 보듯 하고 남자를 사랑하던 남성 동성애자였다.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제부터인가 동성애에 대한 사랑의 욕구가 시작되는 것을 느낀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자에 대한 지나친 반감과 남자에 대한 지나친 애정... 내가 느꼈던 감정이었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낯설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향한 부적절한 감정 때문에 그들이 속한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오랜 시간을 힘들어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동성만을 좋아했던 마음이 이성에게 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가능했다. 그것은 가리워져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 주었고 나아가 결혼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이끌었다. 이 글을 통해 동성애에서 벗어나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평범한 행복을 원하지만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며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가!

나는 현재 결혼 5년차를 지나고 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요즘 나의 삶은 평범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들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함께 뛰어놀고, 육조에 물을 가득 받아 물놀이를 하며 씻겨 준다. 쉬는 날이 되면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간다. 큰 아들은 네 살, 둘째 아들은 두 살이고 20개월 터울로 태어났다. 지치지 않고 움직이며 장난을 치는 두 아들 때문에 집안은 조용한 날이 없다. 치위도 치위도 지저분하고, 울고 징징대는 것을 달래고 훈육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다. 지칠 때도 있지만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며 양육하는 데 정성을 쏟는다. 아내는 나의 둘도 없는 좋은 친구이고 조연자이며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사람이다. 매일의 소소한 삶을 나누고 비밀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디며 미래를 계획하는 평생의 반려자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삶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가정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안식처이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사람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다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과정은 선순환이고 막힘이 없다. 인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주장하며,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며 심지어는 의학의 힘을 빌려 동성 간 자녀 출산까지도 가능하게 하려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앞으로의 결혼식에서는 턱시도만 입은 신랑과 신랑, 드레스만 입은 신부와 신부 심지어 턱시도를 입은 신부와 드레스를 입은 신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만 있는 가정, 어머니들만 있는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학부모라는 말을 대체할 단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비윤리적이며 혼란스러운지.** 동성 간의 결혼과 자녀 양육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굳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부간의 육체 결합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창조주의 인간을 향한 매우 특별한 선물이다. 사람의 신체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신체는 남자와 여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섬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동성 간의 결합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물건의 용도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 같다.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억지로 성관계를 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 성병, 피부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린다. 특히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의 경우 항문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아주 고통스러우며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무엇보다 동성 성관계의 가장 위험한 점이

있다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부부의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과 다양한 부작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부부가 사랑하여 육체가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된다. 그러나 동성 간에는 결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 어떠한 의학적 도전을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 대리모를 통하기도 하고,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 간에 합의하여 서로 자녀를 출산해 주기도 한다. 동성애자들은 이제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대리 출산까지도 허용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해 주고 그들의 대리 출산까지도 허용해 준다면, **그들이 자녀를 얻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얼마나 더 허물어서 그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가?**

나아가 자녀 양육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온전하게 자라난다. 아버지를 보며 배우는 것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 또 어머니를 보며 배우는 것이 있고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 어느 한 쪽이 결핍될 때, 자녀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동성의 부모를 가진 아이는 어떻게?** 아버지뿐인 가정, 어머니뿐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명의 남자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서, 한 명의 여자가 아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 남자가 모성애를, 여자가 부성애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성애를 극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성이 싫고, 이성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 역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다. 스스로 동성애에 대해 반문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해 직면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틀릴 수 있고, 내 마음이 무언가 고장이 났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 이러한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아내는 나와 연애를 할 때 내 손을 먼저 잡았다. 왜냐하면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좋았고, 이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내를 향한 성적 열정이 처음부터 불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의지적으로 노력하였다. 아내는 나를 믿어주었고, 나도 반드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얼마나 오래 동성애 생활을 해 왔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다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며, 분명 더 행복하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치료를 위한 의학, 상담 분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편견도, 정죄와 판단도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씨름해 줄 사람들... 현재 나는 '아이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와서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풀어놓는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혼자 벗어나려고 애쓸 때에는 너무나 힘들고 막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해받고 용납받으며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어가고 있다.

**동성애는 부자연스럽고 비순리적인 일이다.** 사람이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는 있지만 늪에 빠지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동성애와 동성 가정이란 우리의 어떠한 의학적, 사회적, 문화적인 노력으로 순리를 거슬러 보려 할지라도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늘 있어왔던 남녀 간의 사랑은, 시대가 어떠하고 문화가 어떠하든지 동성 간의 사랑과 가정으로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가정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쉼을 얻고 행복을 느끼며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뜻을 정한다면 동성애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